독일 주정부의 'OR' 감독사례

- 2009.12 -

- ECHA에서는 각 EU국가와 협력하여 2009년 5월부터 REACH 공동 집행 프로젝트 (REACH-EN-FORCE-1)를 유럽 전역에 시행하고 있으며, 각 국가의 검사관(Inspector)은 사전등록 및 등록여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 SDS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.
- ECHA에서는 위 프로젝트를 통해 EU의 제조자와 수입자(유일대리인 포함)에 대해 REACH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첫 번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와 동시에 REACH 집행기관(Enforcement authorities)의 권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- 독일, 폴란드, 슬로바키아 등에서 위 REACH 집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정부기관에서 수입자등을 Inspection한 사례가 있었으나, 최근 독일 주 정부에서 독일 'OR'을 감독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독일 주정부의 'OR' 감독사례

- OR 회사명 : "likedeelers GmbH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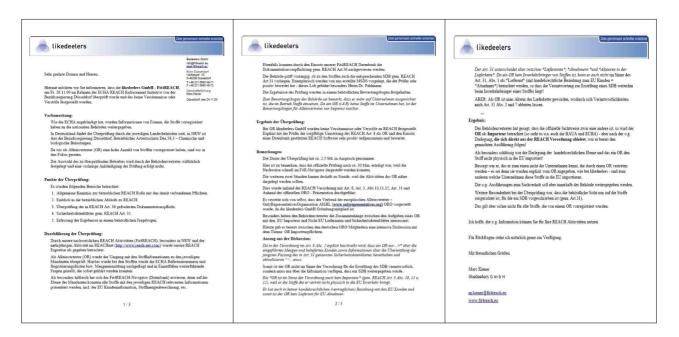
- 감독 일시 : 2009. 11. 20

- 감독 장소 : 독일 뒤셀도르프 소재 likedeelers GmbH 사무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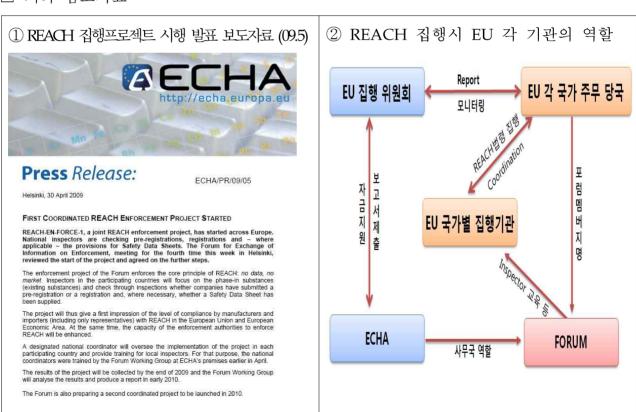
- 감독기관 : 독일 뒤셀도르프市

- 주요 감독 사항 : ECHA REACH Enforcement에 따른 REACH 의무사항 이행 여부
 - ① REACH 역할에 대한 지식 및 의무사항 인지여부
 - ② REACH 규정 36조(정보유지의 의무)에 따른 문서화 여부
 - ③ REACH 규정 31조에 따른 SDS 보유 여부
 - ④ 기타 질의 및 답변

□ likedeelers에서 독일 주정부기관 감독사실에 대해 관련 OR기관에 발송한 공문 (09.11.24)



□ 기타 참고자료



- □ 본 Report는 지식경제부 지원하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작성된 자료이며, 기타 본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